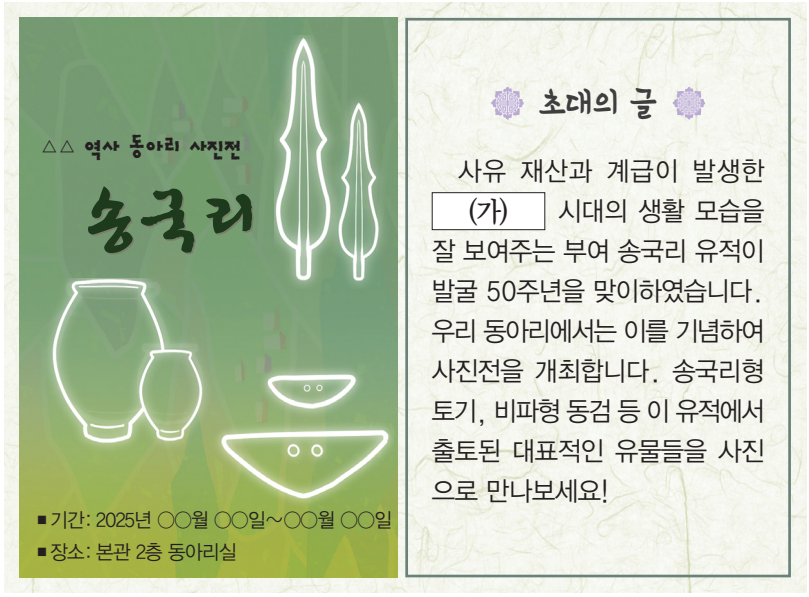
심화 2025년도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주먹도끼 등 뗀석기를 처음 제작하였다.
②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널리 보급되었다.
③ 주로 강가의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④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기 시작하였다.

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진승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가 혼란해지자, 연(燕)·제(齊)·조(趙)의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점차 준왕에게 망명해 왔다. 준왕은 이들을 서쪽 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에 이르러 그 성의 서북 방면을 포위하였다. 누선장군도 좌장군과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왕이 끝까지 성을 굳게 지키니, 수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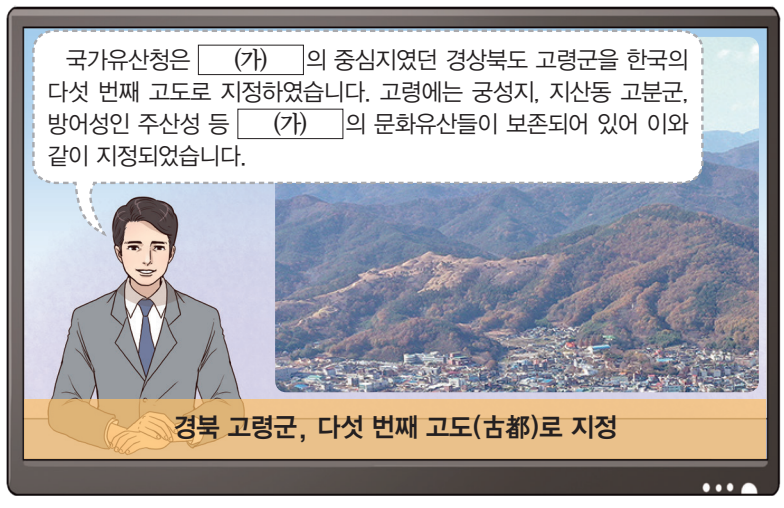
①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②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③ 온조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④ 관구검이 환도성을 침략하여 함락하였다.
⑤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4.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신라 진흥왕에 의해 복속되었다.
②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③ 화백 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④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⑤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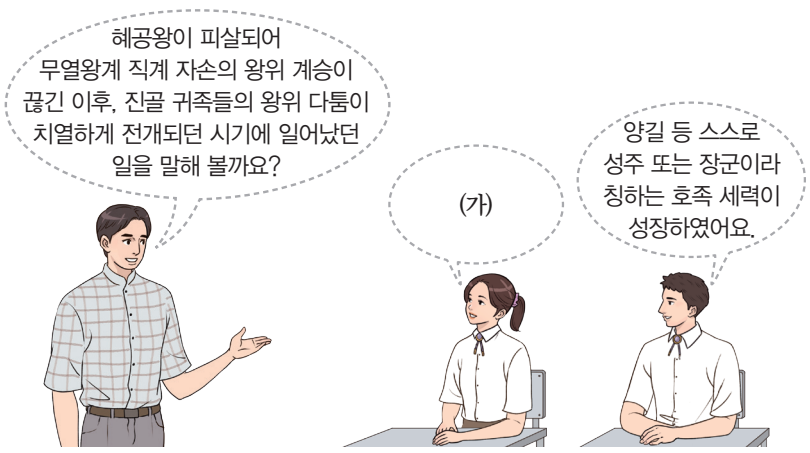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 밑줄 그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그 나라는 관(官)을 세움에 9등이 있다. 첫 번째는 토졸이라 하며, 1품에 비견된다. 옛 이름은 대대로이며, 국정을 모두 맡는다. 3년마다 교대하는데, 직에 걸맞은 자가 있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 또 여러 큰 성에는 녹살(욕살)을 두는데, 도독에 비견된다. 여러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자사에 비견된다. 또한 도사라 이르기도 한다.
>
> –『한원』–

① 수도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③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④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었다.
⑤ 곡물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좌관대식기에 남겼다.

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김흠돌의 난이 진압되었어요.
②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도모하였어요.
③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어요.
④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어요.

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당(唐)이 광주사마 장손사를 보내 수(隋) 병사의 해골을 묻은 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당시에 [고구려가] 세운 경관(京觀)*을 허물었다. 봄 2월에 왕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동북의 부여성에서 동남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 리 남짓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
>
> –『삼국사기』–
>
> *경관: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적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만든 무덤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②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③ 김무력이 관산성에서 백제군을 격파하였다.
④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 조영이 죽으니, 시호를 고왕이라 하였다.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신하가 되었다.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
> ○ 무예가 죽자, 시호를 무왕이라 하였다. 아들 흠무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대흥(大興)으로 고쳤다.
>
> ○ 인수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건흥(建興)으로 고치니, 그의 4대조 야발은 조영의 아우이다. 인수는 바다 북쪽의 여러 부(部)를 토벌하고 영역을 크게 넓힌 공이 있다.

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을 제한하였다.
②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③ 내신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④ 국경 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⑤ 상수리 제도를 통해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9.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을 알아본다.
②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킨 곳을 찾아본다.
③ 성왕이 새로운 도읍지로 정한 곳을 검색한다.
④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확인한다.
⑤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곳을 답사한다.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견훤이 신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던 신라 왕은 적의 병사들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함께 달아나 성의 남쪽에 있는 별궁에 숨었다. 견훤은 신라 왕을 찾아내고 핍박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나) 견훤이 고창군을 포위하자 유금필이 왕에게 아뢰기를, "싸워 보지도 않고 먼저 패배를 걱정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신은 군대를 진격해 서둘러 공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① 신숭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②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되었다.
③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④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⑤ 왕건이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11.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사료로 만나는 한국사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태학조교 송승연과 나주목(羅州牧)의 경학박사 전보인이 [학생들을] 이끌어 잘 도와서, 학문을 널리 닦으라는 공자의 뜻에 합치된다.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아서 내가 학문을 권장하는 뜻에 들어맞으니 마땅히 그들을 발탁하여 특별하고 두터운 총애를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해설] 위 사료는 (가)이/가 유학 교육에 공이 있는 태학조교와 나주목의 경학박사를 치하하는 『고려사』의 기록이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교육도 장려했던 (가)은/는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에 이어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12.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②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④ 서희를 파견하여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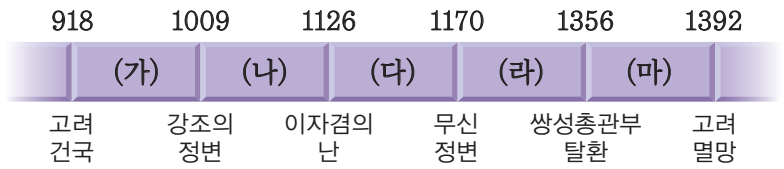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습니다.
②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습니다.
③ 지공거 출신으로 9재 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④ 입학도설을 저술하여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해설하였습니다.
⑤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습니다.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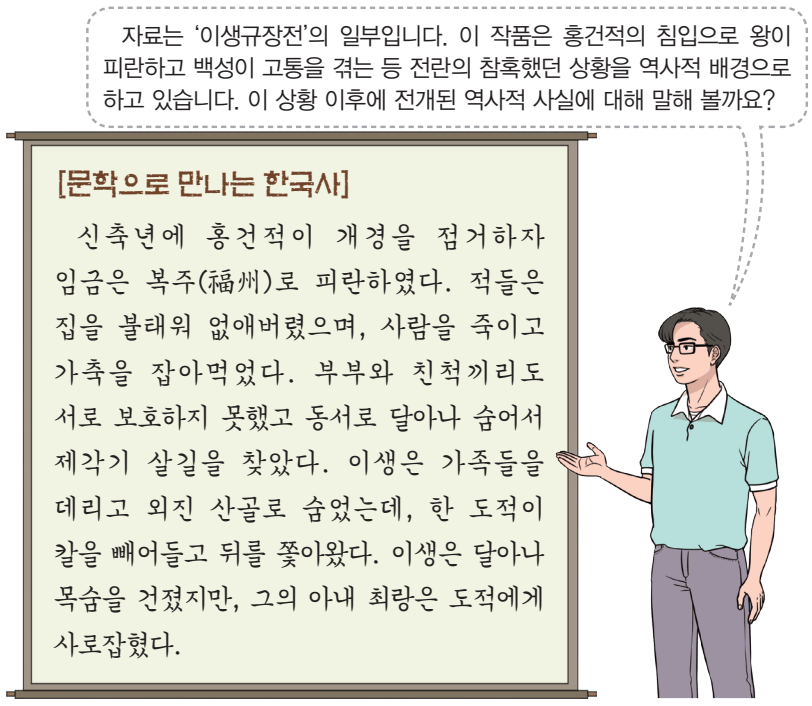
14.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서경 반란군이 검교첨사 최경을 개경으로 보내 표문을 올려 이르기를, "폐하께서 음양의 지극한 말을 믿으시고 도참의 비설을 고찰하시어 대화궁을 창건하시니 천제(天帝)의 도읍을 본떠 만드신 것입니다. …… 인심은 두려운 것이며 군중의 분노는 막기 어려우니 만약 폐하께서 수레를 타고 임하신다면 병란은 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표문이 도착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하가 감히 군주를 부르다니 그 사자(使者)를 베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5.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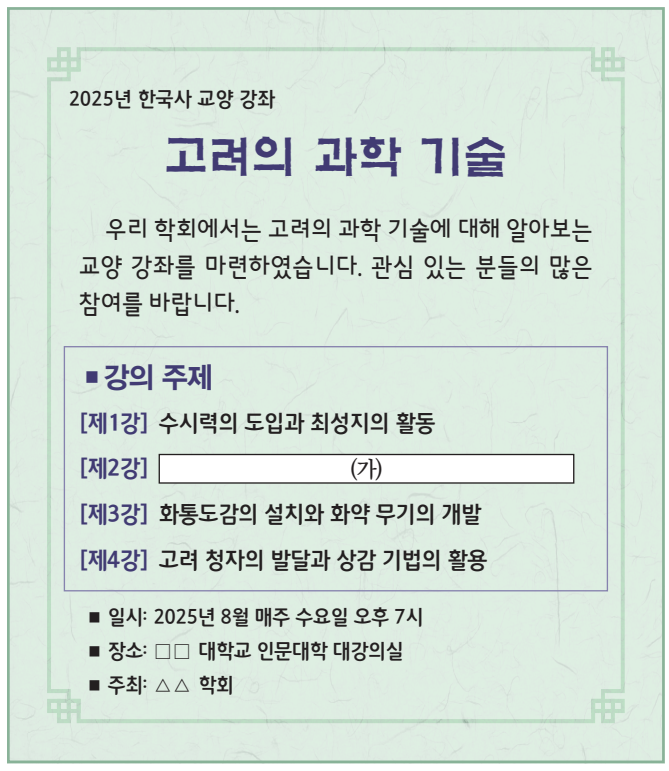
① 김사미가 운문을 거점으로 봉기하였어요.
② 강감찬이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였어요.
③ 후주 출신 쌍기가 과거제 도입을 건의하였어요.
④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두어 국정을 총괄하였어요.
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어요.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 동소(銅所)·철소(鐵所)·자기소(瓷器所)·지소(紙所)·묵소(墨所) 등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여 장인들이 고통스러워 도망하고 있다.
>
> ○ 왕이 명령하기를,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니, 주조한 돈 1만 5천 관(貫)을 여러 관리와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를 통용의 시초로 삼고 전문(錢文)은 해동통보라 하여라."라고 하였다.

①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②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③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⑤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의약학의 발전과 향약집성방의 편찬
② 100리 척의 사용과 동국지도의 제작
③ 기하학적 원리와 경주 석굴암의 조성
④ 금속활자 기술과 직지심체요절의 간행
⑤ 농업 기술의 발달과 임원경제지의 저술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8.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처음에 공신 배극렴·조준·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를 고려하여 정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강씨를 중히 여겨 이방번에게 뜻이 있었으나, 공신들은 방번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기를, "만일 강씨 소생이어야 한다면 막내가 조금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가?"라고 물으니, 맏아들 혹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극렴이 말하기를, "막내아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마침내 뜻을 결정하여 어린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

①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본다.
②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③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
④ 폐모살제 등을 구실로 반정을 일으킨 세력을 검색한다.
⑤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을 알아본다.

2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②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③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④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⑤ 대사헌을 수장으로 집의, 장령 등의 관직을 두었다.

21. (가)에 대한 조선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② 두만강 일대를 개척하여 6진을 설치하였다.
③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④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조광조 등의 일은 내가 늘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으나 선왕(先王)께서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였다. 이제는 내 병이 위독하여 비로소 유언하니 조광조 등의 벼슬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현량과도 회복하여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나) 부제학 정언각이 아뢰기를, "소신이 양재역에 이르러서 벽에 써 붙인 주서(朱書)를 보았는데 국가에 관계된 내용이었으므로 지극히 놀랐습니다. …… 또 반역의 잔당들은 이미 죄를 물었습니다만, 심영은 대왕대비를 가리켜 신하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하가 그와 같은 말을 하고서 어떻게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②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③ 세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정철이 유배되었다.
④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23.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

남한산성 무너진 날 죽었어야 할 몸인데
초수(楚囚)*되어 아직도 못 돌아간 신하라네
서쪽으로 오며 형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 뿌렸던고
동녘을 바라보니 아우 그린 형이 가련하네
……
부부 은정(恩情) 중하기도 한데
만난지 두 돌도 못 되었네그려
이제는 만 리 밖에 이별하여
백년 가약이 헛되구나
길이 멀어 편지도 못 부치고
산이 높아 꿈조차 더디 넘네
나의 살 길 기약할 수 없으니
뱃속의 아이나 잘 보살펴주오

*초수: 포로를 뜻함

[해설]

이 작품은 송시열이 펴낸 『삼학사전』에 수록된 시로, 오달제가 형과 아내에게 보낸 것입니다. 삼학사는 (가)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이듬해 심양으로 잡혀가 순절한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말합니다.

『삼학사전』에는 삼학사의 절개와 비극적 최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종은 (가)의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는 한편 순절한 인물을 기리고 그 후손을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①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하였다.
②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③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④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24.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직후 (가)의 명으로 송인명 등이 난의 진행 과정과 원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편찬한 것입니다. 어제(御製) 서문에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원인을 붕당에서 찾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이 책을 편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②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하였다.
③ 탕평 교서를 반포하고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④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⑤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25.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이것은 장용영이 존재하던 시기 한양 도성 일대를 그린 도성도입니다. 종묘 부근에 장용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드러진 특징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보는 왕의 시각에 맞춰 그려, 지도의 상단이 남쪽으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수화풍의 산세 표현은 겸재 정선의 화풍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① 세책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② 동국정운을 편찬하는 집현전의 학자
③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제작하는 장인
④ 형평사 창립 대회 개최를 취재하는 기자
⑤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비가 내리자 왕이 특별히 화성부에 이르기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 데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남쪽 지방의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메밀이다. 내가 이 때문에 모내기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메밀을 대신 파종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염포의 왜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②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로 사용하였다.
③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④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⑤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하였다.

27.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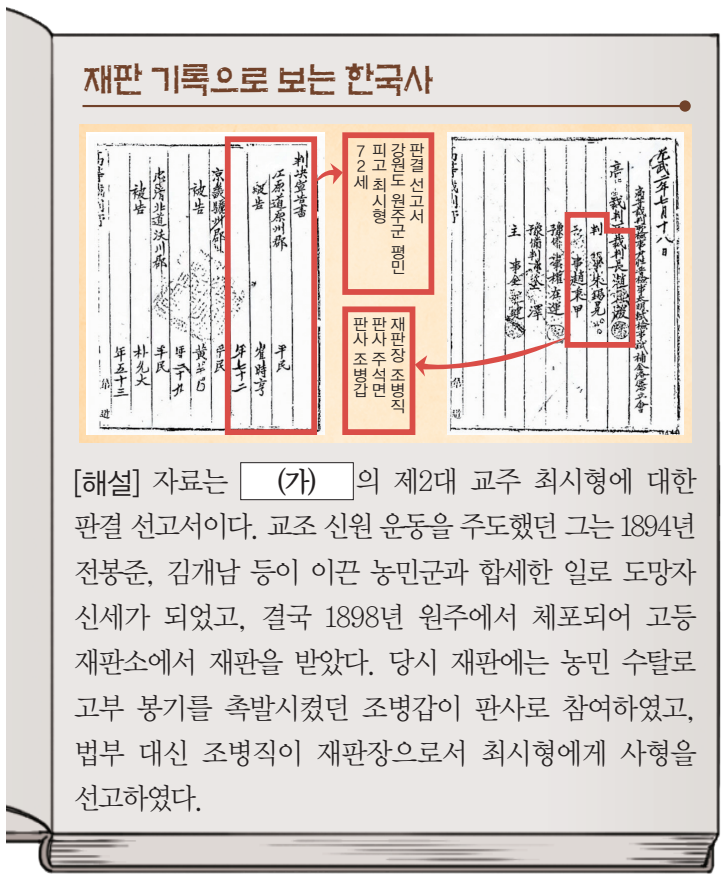
①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②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③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④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⑤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28.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김옥균 등은 청이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분노하여 일본 공사와 (가) 을/를 일으켜 '일본당'으로 지목되었다. (가) 이/가 실패하자 온 나라가 그를 역적이라 하였다. 나는 조정에 몸을 담고 있어 그를 토벌하여 죽여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옥균과 나의 마음은 그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
> –『속음청사』–

①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② 전개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③ 통리기무아문이 신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④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청일 간에 톈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29.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해설] 자료는 (가) 의 제2대 교주 최시형에 대한 판결 선고서이다. 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했던 그는 1894년 전봉준, 김개남 등이 이끈 농민군과 합세한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결국 1898년 원주에서 체포되어 고등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는 농민 수탈로 고부 봉기를 촉발시켰던 조병갑이 판사로 참여하였고, 법부 대신 조병직이 재판장으로서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① 포접제를 활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②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③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④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⑤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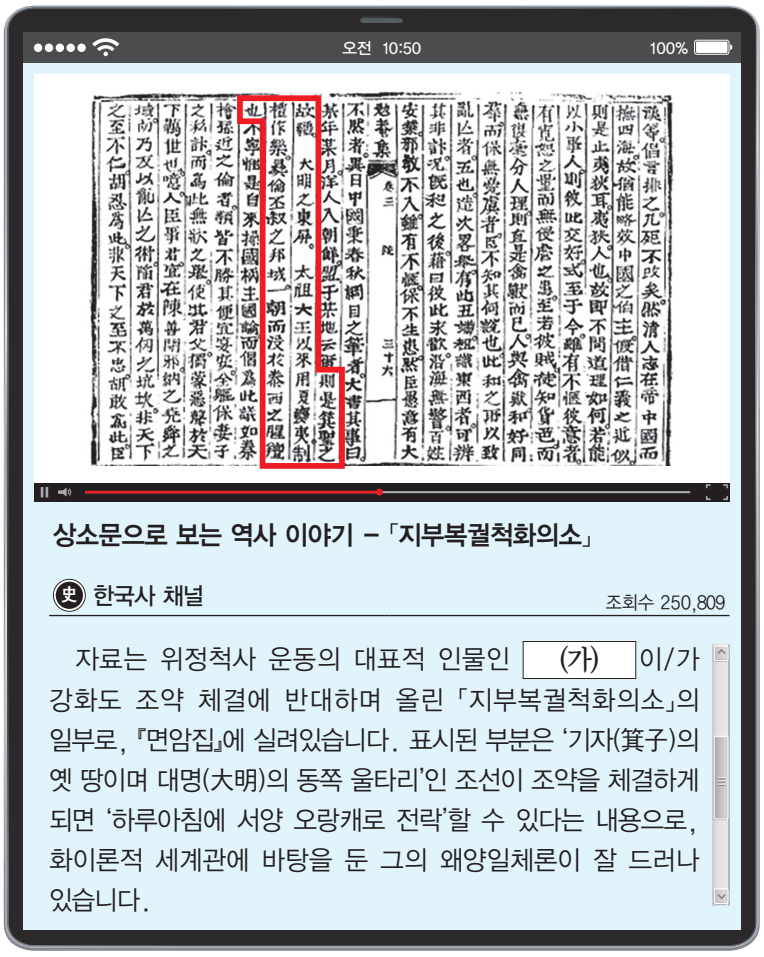
30. 밑줄 그은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고종이 아관 파천을 단행하였다.
②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③ 러시아가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⑤ 평양 관민이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②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③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④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⑤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준 연보

1859년 함경도 북청에서 출생
1895년 법관 양성소 졸업
1898년 ㉠ 독립 협회 가입
1904년 ㉡ 보안회 조직
일제의 압력으로 황해도 철도(鐵島)로 유배
1905년 ㉢ 헌정 연구회 조직
1906년 ㉣ 대한 자강회 조직
1907년 ㉤ 신민회 가입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 사망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① ㉠ –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③ ㉢ –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④ ㉣ –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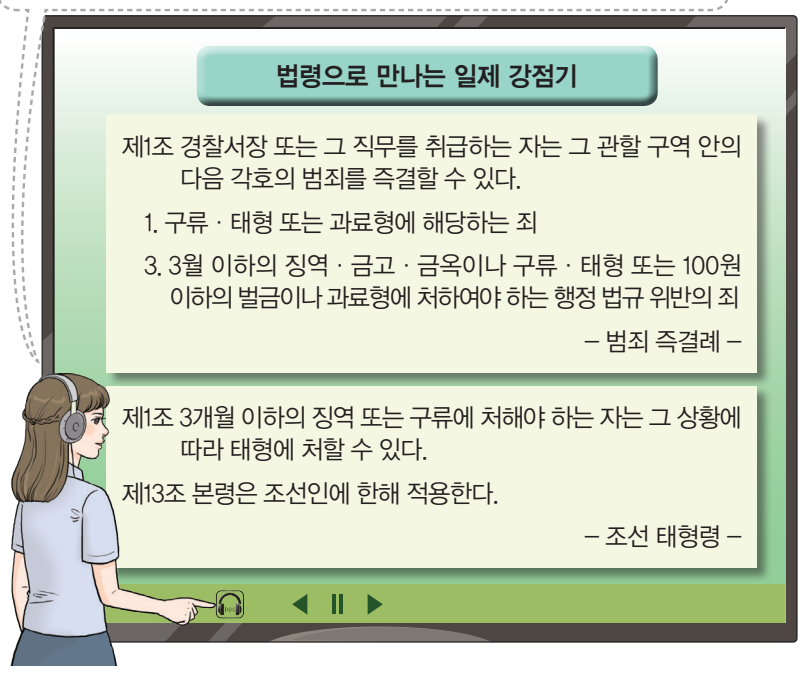
33. 다음 자료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당연한 일로 굳게 믿었고, 한국과 청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 만일 일본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나날이 억누른다면, 차라리 다른 인종에게 망할지언정 같은 인종에게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한국과 청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용솟음칠 것이다. ……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뤼순으로 정하였다.

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②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③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④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일으켰다.
⑤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34.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일제는 범죄 즉결례를 제정하여 재판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태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행 이듬해 일제는 범죄 즉결례에 있는 태형 규정을 삭제하고,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②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제정되었다.
③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35.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사설] 대홍수의 재난에서 조선의 형제들을 구하라



▲ 침수된 용산 일대

대홍수로 중부 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7월 18일에는 용산과 뚝섬 일대가 완전 침수되었고 이튿날은 광주군 선리 주민 292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경부선은 10일간 불통이었다. 그럼에도 총독부는 이와 같은 홍수 피해에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의 형제들은 능력껏 구제의 손길을 뻗쳤었다. 그러나 지금 조선에서 홍수 피해로 각지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총독부와 일본인 거류민들은 모른 척하고 있다. 조선인이여! 조선인을 구하라. 재난을 당한 형제와 같이 울며 아프며 살 길을 구하라.

① 영선사 일행으로 청에 가는 생도
② 경성 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③ 국채 보상 운동의 모금에 참여하는 상인
④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⑤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 전기 회사 직원

36. (가)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되던 프랑스에서는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가)와/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당국이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으며 혁명의 희생자 수가 이미 상당하다."라고 보도하며, (가)에 대해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가 주목됩니다.



①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②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③ 대한 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서거하였다.
④ 언론사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3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

일우(一宇) 김한종 (1883~192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출생이다.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조직한 (가)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금과 친일 관리 처단을 주도하였다. 이후 일제에 체포되어 총사령 박상진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①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②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④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38. (가)~(라)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에 걸쳐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누린다.

(나) 중추원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회의하여 결정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1.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6. …… 중추원 의관의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 협회 중에서 27세 이상으로 정치·법률·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선거할 것이다.

(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융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즉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오, 옛 한국의 마지막 1일은 즉 신한국 최초의 1일이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가) – (라)
⑤ (다) – (라) – (나)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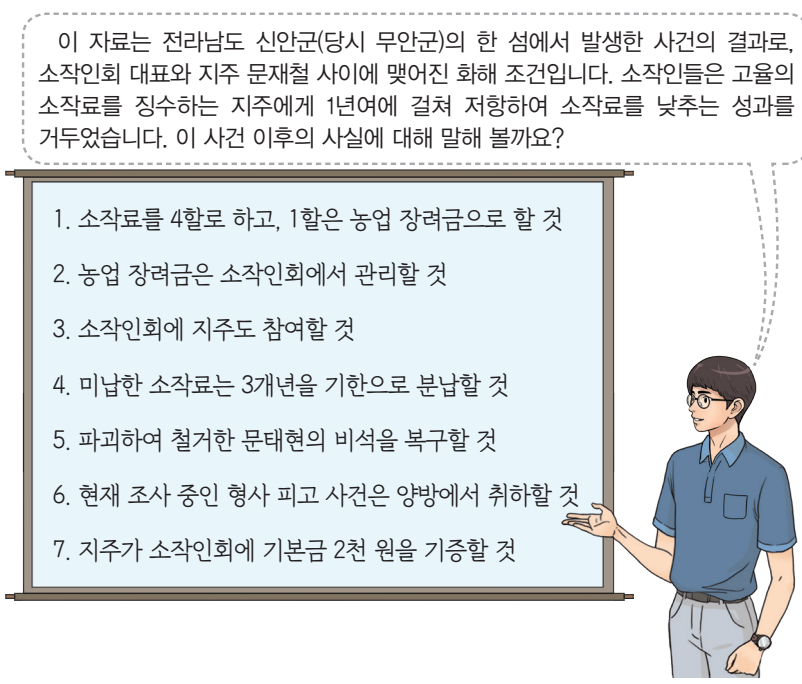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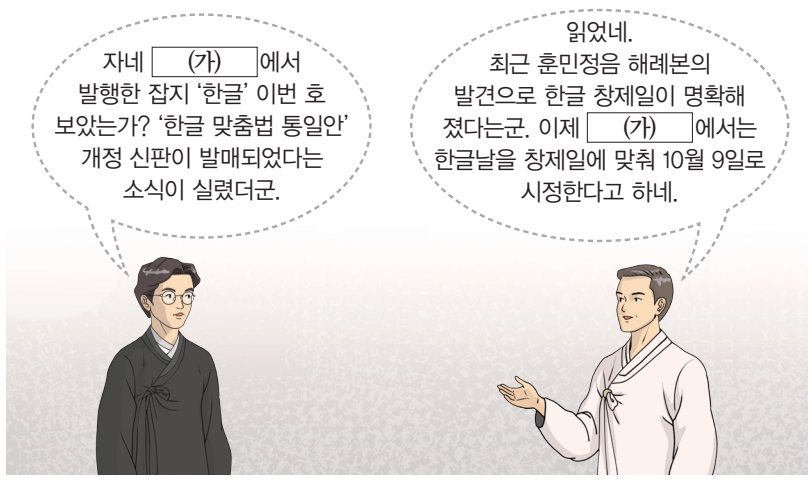
①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②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③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④ 숭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40.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양전 사업이 실시되어 지계가 발급되었어요.
②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어요.
③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어요.
④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농광 회사가 설립되었어요.
⑤ 기한 내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어요.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②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③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④ 조선말(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⑤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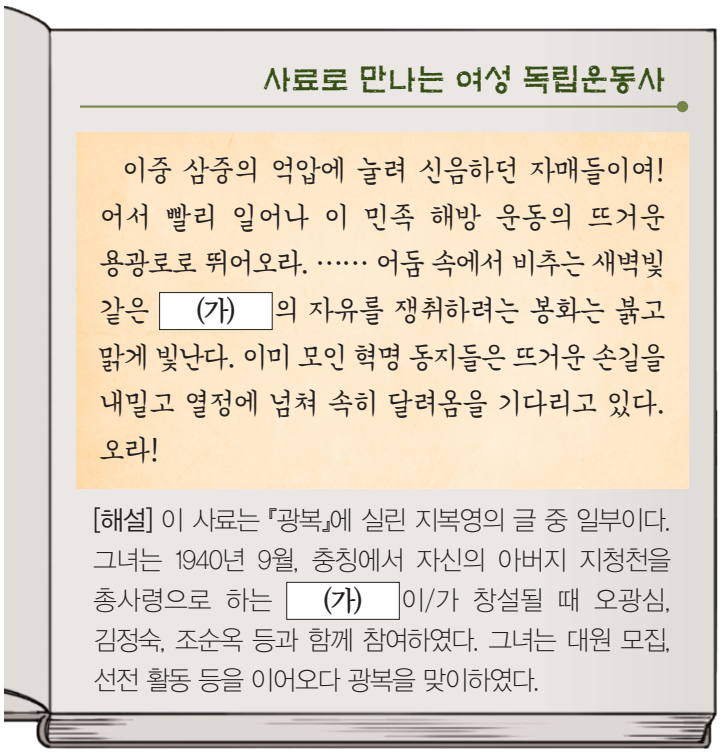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습니다.
②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이 간행되었습니다.
③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 출판되었습니다.
④ 잡지 사상계가 높은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⑤ 아침 이슬 등의 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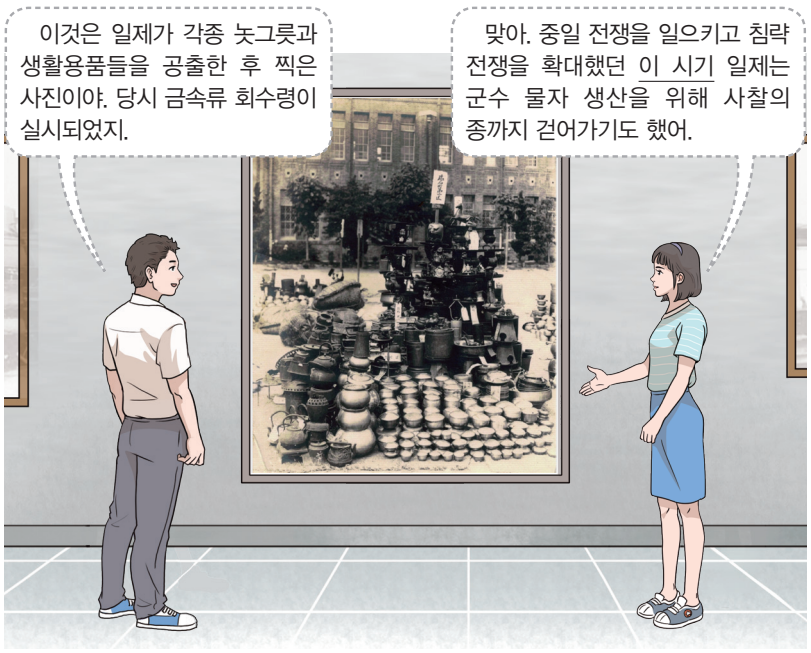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②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③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④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⑤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44.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언론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②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③ 경복궁에서 최초로 조선 물산 공진회를 개최하였다.
④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하였다.

45.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지금 이때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선 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 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았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런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았다.

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②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③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6.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경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②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⑤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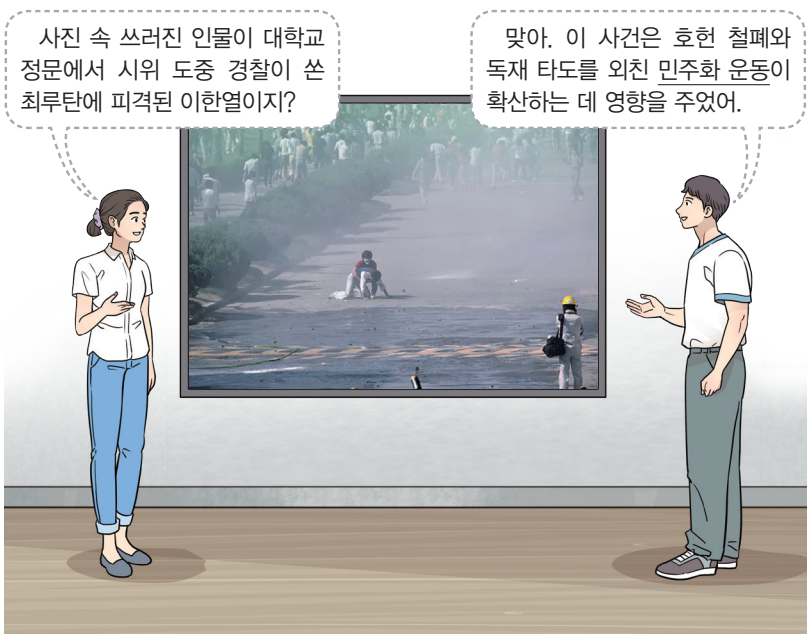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②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③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④ 자치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⑤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48. 밑줄 그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유신 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②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④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49.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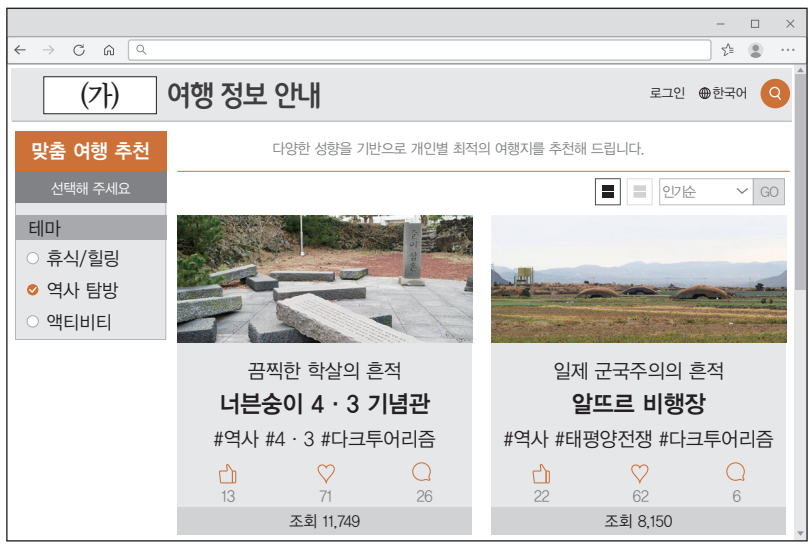
제△△호 ○○○○년 ○○월 ○○일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청산 매듭

어제 단행된 군 장성 정기 인사를 통해 하나회 회원으로 알려진 중장급 이상 장성 전원이 보직 해임되었다. 이번 인사는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8일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예편 조치함으로써 시작된 군대 내 사조직 청산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하나회 완전 제거가 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안정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②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③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④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⑤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50.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원종과 애노가 봉기한 곳을 검색한다.
②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조사한다.
③ 강주룡이 고공 시위를 전개한 장소를 알아본다.
④ 김만덕이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기록을 살펴본다.
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을 찾아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5회 심화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⑤	①	②	④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⑤	③	③	⑤	⑤	④	③	①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②	②	③	①	①	④	⑤	①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②	③	⑤	②	⑤	①	③	④	③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④	①	②	②	④	②	⑤	③	⑤	④

1 선사 · 청동기 시대 — 정답 ④

① X **해설** 주먹도끼 같은 뗀석기를 처음 만들어 쓴 것은 구석기 시대다. 연천 전곡리에서 나온 주먹도끼가 대표적이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청동기를 함께 썼다.

② X **해설** 소로 밭을 가는 우경은 철제 농기구가 퍼진 뒤의 일로, 신라에서는 6세기 초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널리 퍼진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고려 시대 무렵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 같은 돌 도구로 농사를 지었다.

③ X **해설** 사냥감을 따라 옮겨 다니며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지낸 것은 구석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지은 움집을 짓고 언덕 위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④ O **해설** 자료의 (가)는 청동기 시대다.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 부여 송국리 유적, 송국리형 토기, 비파형 동검이 단서다.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옮길 만큼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지배자(군장)가 있었다는 증거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 무덤이다.

1 해설 계속 — 정답 ④

⑤ X **해설**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아 옷과 그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에도 가락바퀴를 썼지만, 「처음 시작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다.

2 선사 · 위만 조선과 멸망 —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 연·제·조의 백성이 준왕에게 망명해 온 일, (나)는 한의 좌장군·누선장군이 왕검성을 에워쌌는데 우거왕이 버틴 일이다(기원전 109~108). 그 사이 연에서 온 위만이 세력을 키워 기원전 194년 무렵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으니 옳다.

② X **해설**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한 것은 512년 신라 지증왕 때다. 고조선이 멸망한 뒤 600여 년이 지난 일이다.

③ X **해설** 온조가 위례성에 도읍하고 백제를 세운 것은 기원전 18년으로 전한다. 왕검성이 함락된 기원전 108년보다 뒤의 일이다.

2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위(魏)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쳐서 도읍 환도성을 함락한 것은 244~245년 동천왕 때다. 고조선 멸망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⑤ X 해설 미천왕이 요동의 서안평을 차지한 것은 311년이다. 미천왕은 이어 313~314년에 낙랑군·대방군을 몰아냈다. 모두 고조선 멸망 뒤 고구려의 일이다.

3 고대 · 삼국의 고분 정답 ⑤

① X 해설 사진은 백제 금동대향로다.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되었고, 뚜껑의 봉황과 받침의 용, 신선 세계를 새긴 산봉우리가 특징이다.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② X 해설 사진은 금동 연가7년명 여래 입상이다. 커다란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고구려 연호가 새겨져 539년 무렵 고구려에서 만든 불상으로 본다. 경남 의령에서 발견되었지만 고구려의 문화유산이다.

③ X 해설 사진은 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판갑옷이다. 철이 풍부했던 가야의 무덤(김해·부산 등)에서 이런 철제 갑옷과 투구가 많이 나왔다. 가야의 문화유산이다.

④ X 해설 사진은 발해 상경성 절터에 남아 있는 석등이다. 현무암으로 만든 높이 약 6m의 팔각 석등으로, 연꽃무늬 받침에서 고구려 문화를 이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발해의 문화유산이다.

⑤ O 해설 (가)는 신라다. 금관총 금관·황남대총 금관처럼 경주에서 발견된 금관 6점, APEC이 열린 경주가 단서다. 사진은 1973년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장니 천마도로, 말 탄 사람의 흙이 튀지 않게 안장 양쪽에 늘어뜨리는 장니에 하늘을 나는 말을 그렸다.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4 고대 · 금관가야와 대가야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대가야다. 경북 고령이 중심지였고, 궁성지·지산동 고분군·주산성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단서다. 대가야는 562년 신라 진흥왕이 보낸 이사부와 사다함의 군대에 멸망해 신라에 복속되었다.

② X 해설 광평성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태봉)의 최고 정치 기구다. 궁예는 광평성 아래 여러 관청을 두어 나라의 틀을 짰다. 가야와는 관계없다.

③ X 해설 화백 회의는 신라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큰일을 만장일치로 정한 회의다. 가야의 제도가 아니다.

4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왕 아래의 대가(大加)들이 사자·조의·선인 같은 관리를 따로 거느린 것은 초기 고구려다. 대가들이 저마다 세력을 지닌 연맹 왕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X 해설 박·석·김의 세 성씨가 번갈아 왕위를 이은 것은 초기 신라(이사금 시기)다. 내물 마립간 이후에는 김씨가 왕위를 이어 갔다.

5 고대 · 삼국의 경제 정답 ②

① X 해설 동시전은 509년 신라 지증왕이 수도 경주에 시장(동시)을 열면서 그 시장을 감독하려고 둔 관청이다.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의 일이다.

② O 해설 밑줄 그은 「그 나라」는 고구려다. 『한원』에 나오는 최고 관등 대대로, 큰 성의 욕살, 여러 성의 처려근지가 모두 고구려의 관직이다.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어 곡식 등을 보관했다(『삼국지』 위서 동이전).

③ X 해설 건원중보는 996년 고려 성종 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철전)다. 고려의 일이다.

④ X 해설 솔빈부의 말은 발해의 이름난 특산품으로 주변 나라에 수출되었다. 솔빈부는 발해의 15부 가운데 하나다.

⑤ X 해설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내용을 적은 좌관대식기는 백제 사비 시기의 목간(나무 조각에 쓴 기록)으로, 부여에서 출토되었다. 백제의 일이다.

6 고대 · 신라 하대의 혼란과 호족 정답 ④

① X 해설 김흠돌의 난은 681년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직후 일어났고, 신문왕은 이를 진압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혜공왕 피살(780)보다 앞선 신라 중대의 일이다.

② X 해설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들을 모아 신분 해방을 꾀한 것은 1198년, 고려 최충헌 집권 시기의 일이다. 신라 하대와 관계없다.

③ X 해설 관리에게 관료전을 준 것은 687년, 녹읍을 없앤 것은 689년으로 모두 신문왕 때다. 왕권이 강했던 신라 중대의 정책이다.

④ O 해설 (가)에는 신라 하대의 일이 들어가야 한다. 「혜공왕이 피살되어 무열왕계 직계 왕위 계승이 끊긴 이후」(780년 이후)와 「양길 같은 호족의 성장」이 단서다. 822년 헌덕왕 때 웅천주(공주)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으니 옳다.

6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527년 법흥왕 때다. 신라 하대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7 고대 · 고구려의 대외 항쟁 정답 ④

① X 해설 을지문덕이 살수(청천강)에서 수 양제의 별동대를 크게 무찌른 살수 대첩은 612년이다. 자료의 상황(631)보다 앞선 일이다.

② X 해설 고구려 광개토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친 것은 400년이다. 자료의 상황보다 훨씬 앞선다.

③ X 해설 신라의 김무력이 관산성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백제 성왕이 전사한 것은 554년이다. 자료의 상황보다 앞선다.

④ O 해설 자료는 631년(영류왕 14) 당이 고구려가 세운 경관을 허물자, 고구려가 부여성에서 동남쪽 바다까지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 뒤 642년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뒤 권력을 잡았으니 옳다.

⑤ X 해설 백제 근초고왕의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 것은 371년이다. 자료의 상황보다 훨씬 앞선다.

8 고대 · 발해의 건국과 발전 정답 ②

① X 해설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과 관직에 한계를 둔 것은 신라의 골품제다. 발해의 제도가 아니다.

② O 해설 자료의 국가는 발해다. 고왕(대조영), 연호 인안을 쓴 무왕(대무예), 대흥을 쓴 문왕(대흠무), 건흥을 쓴 선왕(대인수)이 나온다. 발해는 문왕 때 당의 국자감을 본떠 주자감을 두고 왕족과 귀족 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쳤으니 옳다.

③ X 해설 내신좌평을 비롯한 6좌평을 둔 것은 백제다. 『삼국사기』는 고이왕(260) 때 6좌평과 16관등을 정했다고 적는다.

④ X 해설 북쪽 국경 지대를 북계·동계의 양계로 나누고 병마사를 보낸 것은 고려다. 발해와 관계없다.

⑤ X 해설 지방 세력의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한 상수리 제도는 통일 신라의 제도다. 고려의 기인 제도로 이어졌다.

9 통합 · 지역사 정답 ③

① X 해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쓴 곳은 신유박해(1801)로 유배된 흑산도다. 흑산도 바다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조사해 1814년 무렵 완성했다. 부여와 관계없다.

② X 해설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킨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명활성 일대)다. 647년 선덕여왕 말년의 일로, 김유신 등이 진압했다.

③ O 해설 (가)는 부여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운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이 있는 곳이 단서다. 백제 성왕은 538년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으니 옳다.

④ X 해설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한 곳은 신라의 대야성(경남 합천)이다. 642년의 일이다.

⑤ X 해설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싸운 곳은 충주 탄금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로, 이 싸움에서 조선군이 크게 졌다.

10 고려 ·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927년 견훤이 경주를 습격해 포석정에 있던 경애왕을 자결하게 한 일, (나)는 930년 고창(안동) 전투를 앞두고 유금필이 싸우기를 주장한 일이다. 그 사이인 927년, 경주를 구하러 가던 왕건이 공산(대구 팔공산)에서 견훤군에 포위되었고, 신숭겸이 왕건을 대신해 싸우다 전사했으니 옳다.

② X 해설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이끌던 안승을 금마저(익산)에 머물게 하고 보덕국왕으로 삼은 것은 674년이다. 후삼국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

③ X 해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백제가 멸망한 660년 무렵의 백제 부흥 운동이다. 후삼국 시기와 관계없다.

④ X 해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린 것은 894년이다. 견훤의 경주 습격(927)보다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왕건이 일리천(경북 구미 선산)에서 신검의 후백제군을 물리친 것은 936년이다. 고창 전투(930)보다 뒤의 일로, 이 싸움으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11 고려 · 성종과 유교 정치 정답 ⑤

① X 해설 광덕(950)·준풍(960) 같은 독자 연호를 쓴 왕은 광종이다. 광종은 왕의 힘을 키우려고 황제처럼 연호를 정해 썼다. 성종보다 앞선 왕의 일이다.

11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신돈을 앞세워 전민변정도감을 두고(1366) 권세가가 빼앗은 땅과 노비를 되돌린 왕은 공민왕이다. 고려 말의 개혁이라 성종과는 시대가 다르다.

③ X 해설 궁궐 안에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1116) 학자들과 경전을 공부한 왕은 예종이다. 성종보다 100년 남짓 뒤의 왕이다.

④ X 해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신하가 지킬 도리를 밝힌 왕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다. 성종의 일이 아니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는 처음으로 12목을 두고 지방관과 함께 경학박사·의학박사를 보낸 왕이라고 했으니 성종이다.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982)를 받아들여 유교를 나라 운영의 바탕으로 삼고 제도를 정비했다.

12 고려 · 몽골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⑤

① X 해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은 것(1107)은 여진에 대한 대응이다. 몽골 침입보다 120여 년 앞선 예종 때의 일이다.

② X 해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조선 선조 때 만든 군대다.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상비군으로, 고려의 몽골 대응과는 관계가 없다.

③ X 해설 박위가 쓰시마섬(대마도)을 친 것(1389, 창왕 1)은 고려 말 왜구에 대한 대응이다. 몽골 침입과는 다른 일이다.

④ X 해설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얻은 것(993)은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일이다. 몽골이 아니라 거란에 대한 대응이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고려 정부가 (가)와 강화를 맺자 삼별초가 반발해 진도 용장성으로 내려가 싸웠다고 했으니 (가)는 몽골이다. 고려는 몽골군이 초조대장경을 불태우자 1236년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두고 대장경판을 새로 새겨 1251년에 마쳤는데, 이것이 팔만대장경이다.

13 고려 · 고려의 유학과 교육 정답 ③

① X 해설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사람은 조선 건국에 앞장선 정도전이다. 최충보다 300년 넘게 뒤의 인물이다.

13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원의 수도 연경에 있던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사귄 사람은 고려 후기의 이제현이다. 만권당은 충선왕이 세운 곳이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의 인물은 해동공자로 불린 문헌공 최충이다. 최충은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를 여러 번 지냈고, 벼슬에서 물러난 뒤 개경에 9재 학당을 세워 제자를 길렀다. 그 학생들을 문헌공도라 불렀고, 이를 본뜬 사학 12도가 생겨났다.

④ X 해설 『입학도설』을 지어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그림과 함께 풀어 쓴 사람은 고려 말~조선 초의 권근이다. 최충의 일이 아니다.

⑤ X 해설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1367)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삼아 성리학을 가르친 사람은 고려 말의 이색이다. 최충은 고려 전기의 인물이다.

14 고려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가) 시기(918~1009)는 고려 건국부터 강조의 정변까지다. 서경 반란군이 표문을 올린 일은 1135년이라 이 시기에 들지 않는다.

② X 해설 (나) 시기(1009~1126)는 강조의 정변부터 이자겸의 난까지다. 거란의 침입과 귀주 대첩, 동북 9성 개척이 이 시기의 일이고, 묘청의 난은 이보다 뒤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서경 반란군이 대화궁을 언급하며 왕이 서경으로 오기를 요구했으니, 묘청이 1135년 서경에서 일으킨 반란이다. 이자겸의 난(1126)과 무신 정변(1170) 사이이므로 (다) 시기다.

④ X 해설 (라) 시기(1170~1356)는 무신 정변부터 쌍성총관부 탈환까지로, 무신 집권과 몽골 침입, 원 간섭기가 들어 있다. 묘청의 난은 무신 정변보다 35년 앞선다.

⑤ X 해설 (마) 시기(1356~1392)는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탈환부터 고려 멸망까지로, 홍건적·왜구 침입과 위화도 회군이 있던 때다. 묘청의 난과는 시기가 다르다.

15 고려 · 신진 사대부와 고려의 멸망 정답 ⑤

① X 해설 김사미가 운문(지금의 청도)을 거점으로 봉기한 것은 1193년, 무신 집권기의 일이다. 홍건적 침입(1361)보다 훨씬 앞이라 「이후의 사실」이 아니다.

② X 해설 강감찬이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무찌른 것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인 1018년이다. 이어 1019년 귀주 대첩에서 크게 이겼다. 홍건적 침입보다 340여 년 앞선다.

15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후주에서 온 쌍기가 과거제를 건의한 것은 광종 때인 958년이다. 고려 초기의 일이라 홍건적 침입 이후가 아니다.

④ X 해설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두어 나랏일을 쥔 것은 1209년(희종 5) 무신 집권기의 일이다. 홍건적 침입보다 앞선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의 「신축년에 홍건적이 개경을 점거해 왕이 복주로 피란했다」는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이다(공민왕 때). 그 뒤인 1388년 이성계가 요동 정벌 도중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

16 고려 · 벽란도와 대외 무역 정답 ⑤

① X 해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두고(828) 바다 무역을 이끈 것은 통일신라 흥덕왕 때의 일이다. 고려의 모습이 아니다.

② X 해설 당백전은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돈을 마련하려고 1866년에 만든 조선 후기의 돈이다. 고려와 관계가 없다.

③ X 해설 계해약조(1443)는 조선 세종 때 쓰시마 도주와 맺은 약속으로, 해마다 오는 무역선(세견선)을 50척으로 정했다. 조선 전기의 일이다.

④ X 해설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앤 것은 1791년 조선 정조 때의 신해통공이다. 고려의 모습이 아니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 동소·철소·자기소 같은 「소」가 별공을 바쳤다는 것과, 처음 돈을 만들어 해동통보라 이름 붙였다는 것이 나온다. 해동통보는 1102년 고려 숙종 때 만든 동전이므로 이 나라는 고려다. 고려 때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송·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다.

17 고려 · 고려의 인쇄술과 대장경 정답 ④

① X 해설 『향약집성방』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와 치료법을 모은 의학책으로, 조선 세종 때인 1433년에 편찬되었다. 고려의 과학 기술이 아니다.

② X 해설 100리를 1척으로 줄여 그리는 백리척을 써서 「동국지도」를 만든 사람은 조선 영조 때의 정상기다. 조선 후기의 일이다.

17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X 해설 경주 석굴암은 통일신라 경덕왕 때(751년 무렵) 김대성이 짓기 시작한 인공 석굴 사원이다. 수학적 비례가 돋보이지만 고려가 아니라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다.

④ O 해설 정답이다. 강좌 제목이 「고려의 과학 기술」이고 다른 강의가 수시력·화통도감·상감 청자를 다루므로 (가)에도 고려의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우왕 3)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금속 활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⑤ X 해설 『임원경제지』는 조선 후기 서유구가 농업과 생활 기술을 정리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고려와 관계가 없다.

18 고려 · 고려의 건축과 석탑 정답 ③

① X 해설 ①은 목탑처럼 돌을 짜 맞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백제 무왕 때(639) 세운 탑으로, 고려가 아니라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② X 해설 ②는 2단 기단 위에 3층 몸돌을 올린 통일신라 양식의 삼층 석탑이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처럼 8세기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려의 탑이 아니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의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은진 미륵)으로, 968년 무렵 고려 광종 때 만들기 시작했으니 (가)는 고려다. ③은 원의 영향을 받아 1348년(충목왕 4) 세운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으로, 아래 3층이 「亞」자 모양으로 꺾인 대리석 탑이다.

④ X 해설 ④는 벽돌을 쌓아 만든 5층 전탑으로, 중국 지린성에 남아 있는 발해의 영광탑이다. 고려가 아니라 발해의 문화유산이다.

⑤ X 해설 ⑤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고 기단 모서리에 돌사자를 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신라 선덕 여왕 때(634) 세워졌다.

19 조선전기 · 조선의 건국과 태조 정답 ①

① O 해설 정답이다. 자료는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1392) 과정이다. 건국에 공이 큰 이방원 등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이에 불만을 품었고, 1398년 이방원이 정도전·남은 등을 없애고 세자 방석을 죽인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19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수양 대군이 김종서·황보인 등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일은 1453년 단종 때의 계유정난이다. 세자 책봉 자료와는 관계가 없다.

③ X 해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1575)은 선조 때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맞선 일이 계기다. 이방석 세자 책봉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광해군의 폐모살제(인목 대비 폐위·영창 대군 죽음) 등을 구실로 서인이 반정을 일으킨 것은 1623년 인조반정이다. 조선 중기의 일이다.

⑤ X 해설 허적·윤휴 등 남인이 대거 쫓겨난 일은 1680년 숙종 때의 경신환국이다. 태조 때의 세자 책봉과는 관계가 없다.

20 조선전기 ·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 정답 ⑤

① X 해설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맡은 기구는 한성부다. 사헌부가 아니다.

② X 해설 을묘왜변(1555)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된 것은 비변사다. 비변사는 삼포왜란(1510) 때 임시로 처음 두었다.

③ X 해설 서얼 출신 학자(이덕무·박제가·유득공 등)를 검서관으로 뽑은 곳은 정조 때의 규장각이다(1779). 사헌부와는 다르다.

④ X 해설 역사를 기록하고 실록을 편찬해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은 곳은 춘추관이다. 사헌부의 일이 아니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자료에서 (가)를 「상대」라고도 부르며 모든 관리를 살피고 탄핵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고, 소속 관리로 감찰이 나오므로 (가)는 사헌부다. 사헌부는 종2품 대사헌을 우두머리로 집의·장령·지평·감찰 등의 관직을 두었다.

21 조선전기 ·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정답 ②

① X 해설 동평관은 한성에 두어 일본에서 온 사신과 왜인이 머물며 접대를 받던 곳이다. 여진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한 시설이고, 조선이 여진에 쓴 회유책은 국경의 경성·경원에 연 무역소였다.

② O 해설 「1588년 북병사 이일이 정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라는 단서로 (가)는 여진이다. 세종 때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몰아내고 1434년부터 6진을 차례로 설치해 1449년에 마무리했다. 조선이 여진에 맞서 국경을 넓힌 대표적인 대응이다.

21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오래 버틴 것은 1232년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맞선 일이다. 조선이 여진에 대응한 일이 아니다.

④ X 해설 철령위 설치에 반발해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은 1388년 고려 우왕과 최영이 명에 맞선 일이다. 이 정벌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멈췄다.

⑤ X 해설 신기군·신보군·항마군으로 된 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든 부대다. 여진을 치려는 부대였다는 점은 같지만 조선이 아니라 고려의 대응이다.

22 조선전기 · 4대 사화 정답 ②

① X 해설 자의 대비의 상복 기간을 두고 벌어진 예송은 현종 때 두 번(1659년 기해예송, 1674년 갑인예송) 일어났다. 서인과 남인이 다툰 일로, 명종 초보다 100년 넘게 뒤의 일이다.

② O 해설 (가)는 병이 위독한 왕이 선왕(중종)이 허락하지 않던 조광조의 벼슬을 되돌려 주라고 한 장면으로, 1545년 인종 때다. (나)는 정언각이 양재역 벽서를 보고한 1547년(명종 2) 일이다. 그 사이인 1545년, 명종이 즉위한 뒤 외척 대윤(윤임)과 소윤(윤원형)이 다투어 윤임 일파가 제거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③ X 해설 세자 책봉 문제(건저 문제)로 정철이 선조의 노여움을 사 유배된 것은 1591년 선조 때다. (나)보다 40년 넘게 뒤의 일이다.

④ X 해설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의 원자 책봉 문제로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집권한 것은 1689년 숙종 때 기사환국이다. (나)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⑤ X 해설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일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된 것은 1504년 연산군 때 갑자사화다. (가)보다 앞선 일이다.

23 조선전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답 ②

① X 해설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은 1592년 임진왜란이 막 시작됐을 때다. 병자호란보다 40여 년 앞선 일본과의 전쟁이다.

② O 해설 「남한산성 무너진 날」, 심양으로 끌려가 순절한 삼학사(홍익한·윤집·오달제), 효종의 북벌이 단서이므로 (가)는 병자호란(1636~1637)이다. 1637년 1월, 전라 병사 김준룡이 이끈 근왕군이 남한산성을 구하러 올라오다 광교산에서 청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23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한때 도성을 차지한 것은 1624년 인조 때다. 병자호란보다 12년 앞선 일이다.

④ X 해설 강홍립 부대가 명의 요청으로 출병해 사르후 전투에 참전한 것은 1619년 광해군 때다. 병자호란보다 앞선 일이다.

⑤ X 해설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러시아 군대와 싸운 것은 효종 때 나선 정벌(1658)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의 일이다.

24 조선후기 · 영조의 탕평 정치 정답 ③

① X 해설 경기도에서만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1608년 광해군 때다. 그 뒤 대동법은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넓어졌다.

② X 해설 수도 방어를 맡은 금위영을 만든 것은 1682년 숙종 때다. 이로써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③ O 해설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직후」 송인명 등에게 『감란록』을 펴내게 한 왕이므로 (가)는 영조다. 영조는 이인좌의 난(1728)을 겪은 뒤 탕평을 더 강하게 밀었고, 1742년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 붕당을 떠나 인재를 고루 쓰겠다는 뜻을 알렸다.

④ X 해설 젊은 문신을 뽑아 규장각에서 다시 공부시키는 초계문신제는 1781년 정조가 시작했다. 영조가 아니라 정조의 정책이다.

⑤ X 해설 『대전회통』은 1865년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통치 체제를 정비하려고 펴낸 조선의 마지막 통일 법전이다.

25 조선후기 · 서민 문화의 발달 정답 ①

① O 해설 장용영은 정조가 1793년에 세우고 1802년(순조 2)에 없앤 군영이므로, 밑줄 그은 「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초 조선 후기다. 이때는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혀,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세책가에서 『춘향전』 같은 소설을 빌려 보는 사람이 많았다.

② X 해설 『동국정운』은 세종 때 한자음을 바로잡으려고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책으로, 1447년에 완성되고 1448년에 간행되었다. 조선 전기의 모습이다.

③ X 해설 계미자는 1403년 태종 때 주자소에서 만든 금속 활자다. 조선 전기의 모습이다.

④ X 해설 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만든 단체다.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다.

25 해설 계속 정답 ①

⑤ X 해설 경시서는 고려와 조선 초에 시전을 감독하던 관청으로, 1466년(세조 12)에 평시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조 때에는 경시서라는 관청이 없었다.

26 조선후기 · 조선 후기의 농업 정답 ①

① X 해설 왕이 「화성부」에 메밀 대파를 권한 장면이므로 정조 때(18세기 후반) 조선 후기다. 염포는 1426년 3포의 하나로 열려 왜관이 있었지만, 1510년 삼포왜란 뒤 1512년 임신약조로 염포 왜관은 문을 닫았다. 조선 전기의 모습이라 이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다.

② O 해설 상평통보는 1678년(숙종 4)부터 나라의 공식 화폐로 널리 쓰였고 조선 말까지 유통되었다. 정조 때에도 쓰인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③ O 해설 공인은 대동법 시행(1608년 경기도부터) 뒤 관청에서 값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바치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④ O 해설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은 청과의 무역으로 큰돈을 벌었다. 사상이 크게 성장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⑤ O 해설 조선 후기에는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물주(상인 자본가)에게 돈을 받아 일꾼을 모아 광산을 운영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27 조선후기 · 세도 정치 정답 ④

① X 해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 한 것은 1868년 고종 때다. 순조 때가 아니다.

② X 해설 이만손 등 영남 유생이 『조선책략』 유포와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해 영남 만인소를 올린 것은 1881년 고종 때다.

③ X 해설 이시애가 함경도 길주를 근거로 난을 일으킨 것은 1467년 세조 때다.

④ O 해설 세도 정치의 중심인물 김조순을 장인으로 둔 왕이므로 (가)는 순조다. 순조 때인 1811년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봉기해 청천강 북쪽 여러 고을을 차지했고, 정주성에서 버티다 1812년에 진압되었다.

⑤ X 해설 곽재우·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싸운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 때다.

28 근대 · 갑신정변 정답 ⑤

① X 해설 교정청은 1894년 6월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조선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만든 기구다. 갑신정변보다 10년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홍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 초(음력 1894년 12월)에 고종이 반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갑신정변과 관계없다.

③ X 해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개화 정책을 맡기려고 만든 기구다. 갑신정변(1884)보다 먼저 생겼으므로 그 결과가 될 수 없다.

④ X 해설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직후다. 갑신정변보다 앞선 일이다.

⑤ O 해설 김옥균 등이 「청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분노해 일본 공사와 일으킨」 사건이므로 (가)는 갑신정변(1884)이다. 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고, 그 뒤 1885년 청과 일본은 톈진 조약을 맺어 두 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함께 물러나고 앞으로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알리기로 했다.

29 조선후기 · 동학의 창시 정답 ①

① O 해설 2대 교주 최시형, 교조 신원 운동, 1894년 농민군과 합세했다는 단서로 (가)는 동학이다. 최시형은 접주가 이끄는 접과 이를 묶는 포로 된 조직(포접제)을 갖추어 교세를 삼남 지방까지 넓혔다.

② X 해설 배재 학당은 1885년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학교로, 개신교의 활동이다.

③ X 해설 박중빈은 1916년 원불교(처음 이름은 불법연구회)를 열었고, 저축 조합·허례 폐지·금주 금연 같은 생활 개선 운동(새생활 운동)을 벌였다. 원불교의 활동이다.

④ X 해설 사찰령은 1911년 일제가 불교를 통제하려고 만든 법령이다. 한용운 등 불교계가 이 법령의 폐지를 요구했으므로 불교의 활동이다.

⑤ X 해설 의민단은 간도에서 방우룡 등 천주교 신자들이 만든 무장 독립군 단체로,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했다. 천주교의 활동이다.

30 근대 · 러일 전쟁과 한일 의정서 정답 ②

① X 해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 파천은 1896년 2월의 일이다. 러일 전쟁보다 8년 앞선다.

30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끝낸 전쟁」이므로 밑줄 그은 전쟁은 러일 전쟁(1904.2~1905.9)이다. 일본은 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기 땅에 불법으로 편입했다.

③ X 해설 러시아가 부산 절영도를 조차하려 한 것은 아관 파천 뒤 러시아의 간섭이 커지던 1890년대 후반이다. 독립협회가 반대해 막아 냈고, 러일 전쟁보다 앞선 일이다.

④ X 해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뒤 청과 맺은 무역 규정이다. 러일 전쟁보다 20년 넘게 앞선다.

⑤ X 해설 평양 관민이 대동강에 들어온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운 것은 1866년 고종 초의 일이다.

31 근대 · 위정척사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1912년 고종의 밀지(비밀 명령)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만든 사람은 임병찬이다. 임병찬은 1906년 태인 의병 때 최익현과 함께 일어났던 제자이지만, 독립 의군부는 최익현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문 앞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이다. 최익현과는 시대가 다른 일제 강점기의 의거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 인물」, 강화도 조약에 반대한 「지부복궐척화의소」, 『면암집』, 왜양일체론이라는 단서로 (가)는 면암 최익현이다. 최익현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이듬해(1906) 전라북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과 의병을 일으켰고, 붙잡혀 대마도(쓰시마)로 끌려가 그곳에서 숨졌다.

④ X 해설 1909년 12월 명동 성당 앞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최익현이 아니다.

⑤ X 해설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1908년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벌인 사람은 총대장 이인영과 군사장 허위다. 13도 창의군은 1907년 군대 해산 뒤에 결성되었으니 최익현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다.

32 근대 · 애국 계몽 운동과 신민회 정답 ②

① X 해설 고종의 강제 퇴위(1907)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은 대한 자강회(㉣)다. 대한 자강회는 이 일로 1907년 8월 강제로 해산되었다. ㉠ 독립 협회는 이미 1898년 12월에 해산된 단체다.

32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정답이다. ㉡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이 대한 제국 땅의 황무지 개간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이를 막으려고 만든 단체다. 서울 종로에서 집회를 열며 거세게 반대했고, 결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③ X 해설 일제가 꾸며 낸 105인 사건(1911)으로 무너진 단체는 ㉤ 신민회다. ㉢ 헌정 연구회는 1905년 이준·윤효정 등이 입헌 정치를 목표로 만든 단체로, 105인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한 것은 안창호가 이끈 ㉤ 신민회다. ㉣ 대한 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자는 계몽 운동을 했지만 대성 학교를 세운 단체는 아니다.

⑤ X 해설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 11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다. ㉤ 신민회는 1911년 무렵 이미 무너졌다.

33 근대 · 의열 투쟁과 안중근 정답 ③

① X 해설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든 사람은 안창호다. 안중근이 아니다.

② X 해설 황준헌(황쭌셴)이 쓴 『조선책략』을 들여온 사람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다. 안중근과는 관계없다.

③ O 해설 정답이다. 「동양 평화」,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재판 자리를 「뤼순」으로 정했다는 단서로 이 글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고, 1910년 3월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④ X 해설 1945년 7월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친일 강연회장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조문기·유만수·강윤국 등이다. 광복 직전의 일로, 안중근이 순국한 지 35년 뒤다.

⑤ X 해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1915)는 박은식이 썼다. 안중근의 저술이 아니다.

34 일제 · 1910년대 무단 통치 정답 ⑤

① X 해설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잡아 넘기기로 맺은 비밀 협정이다. 1920년대의 일이라 헌병 경찰 시기(1910년대)가 아니다.

34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1941년,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만들었다. 형기를 마친 독립운동가도 다시 가둘 수 있게 한 법으로, 1910년대보다 한참 뒤다.

③ X 해설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펴낸 것은 1883년 개항기다. 일제 강점기보다 앞선다.

④ X 해설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서울의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에 맞서 상권을 지키려고 만든 단체다.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헌병이 경찰 일을 맡고 범죄 즉결례·조선 태형령으로 조선인을 재판 없이 벌하던 때이니, 밑줄 그은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다. 회사령은 1910년 12월 만들어져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했고, 1920년에야 신고제로 바뀌었다.

35 일제 · 1920년대 문화 통치 정답 ②

① X 해설 김윤식이 이끄는 영선사 일행이 유학생을 데리고 청의 톈진으로 가서 무기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은 1881년이다. 개항기의 모습이다.

② O 해설 정답이다.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1923)이라는 단서로 이 기사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의 사설이다.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 예과를 열고 1926년 본과(학부)를 시작했으므로, 1925년 무렵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볼 수 있었다.

③ X 해설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김광제·서상돈 등이 시작해 1908년까지 이어진 모금 운동이다. 대한 제국 시기의 모습이다.

④ X 해설 육영 공원은 1886년 세운 최초의 관립 근대 학교로,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가 영어를 가르쳤고 1894년 문을 닫았다. 개항기의 모습이다.

⑤ X 해설 한성 전기 회사는 1898년 세워졌고, 1899년 서울에 처음 전차를 달리게 했다. 대한 제국 시기의 모습이다.

36 일제 · 3·1 운동 정답 ⑤

① X 해설 간도 참변(경신참변)은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진 일본군이 간도의 한인 마을을 덮쳐 주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3·1 운동(1919) 뒤의 일이라 배경이 될 수 없다.

36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미국에 간 것은 1883년이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뒤 미국 공사가 오자 답례로 보낸 사절단으로, 3·1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③ X 해설 순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26년 4월이다. 그의 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난 6·10 만세 운동의 배경이다.

④ X 해설 브나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이끈 농촌 계몽 운동이다. 1930년대의 일이다.

⑤ O 해설 정답이다.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되던」 때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는 단서로 (가)는 1919년의 3·1 운동이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자, 식민지 민족도 스스로 운명을 정할 수 있다는 희망이 퍼져 3·1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37 일제 ·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정답 ①

① O 해설 정답이다.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조직」, 「총사령 박상진」, 군자금 모금과 친일 관리 처단이라는 단서로 (가)는 대한 광복회다. 대한 광복회는 총사령·부사령을 두는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로, 공화제 국가를 세우려 했다.

② X 해설 정우회 선언(1926)의 영향으로 1927년 결성된 단체는 신간회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친 단체로, 대한 광복회보다 10여 년 뒤에 생겼다.

③ X 해설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1923)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김원봉이 1919년 만주에서 만든 의열단이다.

④ X 해설 1932년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크게 이긴 부대는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이다. 만주의 독립군 부대다.

⑤ X 해설 만민 공동회를 열어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한 단체는 1898년의 독립 협회다.

38 통합 · 시대 통합 정답 ③

① X 해설 (가)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나) 중추원 관제는 1898년이라 (나)가 먼저다. 또 (라) 대동단결 선언(1917)이 (다) 제헌 헌법(1948)보다 앞선다.

② X 해설 (나) 중추원 관제 개편(1898)이 (가) 대한국 국제(1899)보다 먼저 나왔으므로 맨 앞이 (가)일 수 없다.

38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정답이다. (나)는 중추원 의관의 절반을 「인민 협회」(독립 협회)에서 뽑게 한 1898년 11월의 중추원 관제 개편, (가)는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밝힌 1899년 8월의 대한국 국제, (라)는 융희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이어받았다고 선언한 1917년 대동단결 선언, (다)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밝힌 1948년 7월의 제헌 헌법이다.

④ X 해설 (다) 제헌 헌법(1948)은 넷 가운데 가장 늦게 나왔으므로 (가) 대한국 국제(1899)보다 앞에 올 수 없다.

⑤ X 해설 (다) 제헌 헌법(1948)이 맨 앞에 오는 순서는 틀렸다. 실제로는 (나) 1898년이 가장 먼저다.

39 일제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정답 ④

① X 해설 한인 자치 기구 경학사는 1911년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남만주) 삼원보에 만들었다. 멕시코가 아니다.

② X 해설 권업회는 1911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었고, 1912년부터 권업신문을 펴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일이다.

③ X 해설 중광단은 1911년 서일 등 대종교 신자들이 북간도에서 만든 무장 단체다. 멕시코가 아니다.

④ O 해설 정답이다. 1905년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노동자라는 단서로 (가)는 멕시코다. 멕시코 한인들은 메리다에 숭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러 내려 했다.

⑤ X 해설 2·8 독립 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발표했다. 일본에서의 일이다.

40 일제 · 농민·노동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양전 사업을 벌이고 지계(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이 광무개혁으로 한 일이다. 1901년 지계아문을 두었으니 암태도 소작 쟁의보다 훨씬 앞선다.

② X 해설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곡령을 내려 곡물이 일본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은 1889~1890년이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방곡령이 대표적이다. 개항기의 일이다.

40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정답이다. 「신안군(당시 무안군)의 한 섬」, 「지주 문재철」, 소작료를 4할로 낮춘 화해 조건이라는 단서로 이 사건은 1923~1924년의 암태도 소작 쟁의다. 그 뒤인 1927년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뉘면서, 전국 단위의 농민 조직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생겼다.

④ X 해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우리 손으로 개간하자며 농광 회사를 세운 것은 1904년이다.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

⑤ X 해설 기한 안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한 토지 조사령은 1912년 토지 조사 사업 때 만들어졌다. 암태도 소작 쟁의보다 앞선 1910년대의 일이다.

41 일제 · 국어 연구와 조선어 학회 정답 ④

① X 해설 한글 신문에 띄어쓰기를 처음 들여온 것은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순 한글로 펴내면서 낱말을 띄어 써서 읽기 쉽게 만들었다. 조선어학회보다 훨씬 앞선 개항기의 일이다.

② X 해설 『대한문전』은 1909년 유길준이 지은 국어 문법책이다. 서양 문법의 틀을 우리말에 적용한 책으로, 단체가 아니라 한 개인의 저술이다.

③ X 해설 태극 서관은 1908년 무렵 신민회(안창호 등)가 평양 등에 세운 서점 겸 출판사다. 책을 퍼뜨려 민족 의식을 키우려는 애국 계몽 운동의 하나였다.

④ O 해설 잡지 「한글」을 펴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만들었으며,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근거로 한글날을 10월 9일로 바로잡은 단체이니 (가)는 조선어학회다. 조선어학회는 조선말(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했으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고, 광복 뒤 1947년부터 『조선말 큰사전』을 펴냈다.

⑤ X 해설 국문 연구소는 1907년 대한 제국 학부 안에 세운 국가 기관이다. 주시경·지석영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한글 표기법을 연구했다. 일제 강점기의 민간 단체인 조선어학회와는 다르다.

42 일제 · 일제 강점기의 문학과 예술 정답 ①

① O 해설 「모던 걸·모던 보이」와 도심의 백화점이 등장한 일제 강점기 도시 문화를 묻는 자리이니 (가)에는 같은 시기 일이 들어가야 한다. 나운규가 각본·감독·주연을 맡은 영화 「아리랑」은 1926년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일제 강점기 대중문화의 대표 사례다.

② X 해설 순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은 1898년 이종일 등이 창간했다. 일제 강점기보다 앞선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다.

③ X 해설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1954년 신문에 연재되어 큰 화제가 된 작품이다. 6·25 전쟁 뒤 1950년대의 일이다.

④ X 해설 잡지 『사상계』는 1953년 장준하가 창간한 월간지로, 1950~6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광복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⑤ X 해설 김민기가 만든 노래 「아침 이슬」은 1975년 다른 여러 곡과 함께 금지곡이 되었다. 유신 체제(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

43 일제 · 한국광복군 정답 ②

① X 해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만주 화룡현 일대에서 거둔 승리다.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기 20년 전의 일이다.

② O 해설 「1940년 9월 충칭」,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부대라는 단서로 (가)는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은 전쟁 막바지에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손잡고 대원들을 훈련시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작전을 펼치기 전인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다.

③ X 해설 동북 항일 연군은 1936년 무렵 중국 공산당이 이끈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부대다. 여기에 많은 조선인 사회주의자가 참여해 유격전을 벌였다. 임시 정부의 한국광복군과는 다른 흐름이다.

④ X 해설 쌍성보 전투(1932)와 대전자령 전투(1933)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함께 싸워 이긴 전투다. 이때 한국 독립군을 이끈 사람이 바로 지청천인데, 그는 뒤에 한국광복군 총사령이 되었다. 다만 이 전투들은 한국광복군 창설(1940) 전의 일이다.

⑤ X 해설 중국 관내에서 처음 만든 한인 무장 부대는 1938년 김원봉이 한커우에서 조직한 조선 의용대다. 한국광복군(1940)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뒤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44 일제 · 병참 기지화와 인력 수탈 정답 ②

① X 해설 신문지법은 1907년 통감부 시기에 만든 언론 통제 법이다. 신문을 내려면 허가를 받게 하고 기사를 검열했다. 중일 전쟁 이후가 아니라 대한 제국이 국권을 잃어 가던 때의 일이다.

② O 해설 「금속류 회수령」,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했던 이 시기」라는 단서로 밑줄 친 시기는 1937년 이후 전쟁 동원 시기다. 일제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 연맹을 만들고 그 맨 아래에 10호 단위의 애국반을 두어 한국인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③ X 해설 조선 물산 공진회는 1915년 일제가 강제 병합 5년을 기념해 경복궁에서 연 박람회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일이다.

④ X 해설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시작되었다. 대한 제국의 화폐를 일본 제일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게 해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강제 병합 전의 일이다.

⑤ X 해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에 공포되었다. 한국인에게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 하게 한 1910년대 정책이다.

45 현대 ·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답 ④

① X 해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에 열려 한반도 임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 문제를 논의했다. 성명이 나온 1948년 2월보다 앞선 일이다.

② X 해설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 민주당을 만든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이다. 성명보다 앞선 일이다.

③ X 해설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10월이다. 성명보다 앞선 일이다.

④ O 해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구절로 이 성명은 1948년 2월 김구가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5·10 총선거는 그 뒤인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실시되었고, 21세 이상 모든 국민이 투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김구 등 남북 협상파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⑤ X 해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든 것은 광복 당일인 1945년 8월 15일이다. 성명보다 훨씬 앞선 일이다.

46 현대 · 이승만 정부와 발췌·사사오입 개헌 정답 ②

① X 해설 경부 고속 도로는 1968년에 공사를 시작해 1970년 7월 7일 완공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다.

② O 해설 「6·25 전쟁 중 부산 임시 국회」, 「계엄 선포」, 「기립 표결로 통과된 개헌안」이라는 단서로 이것은 1952년 발췌 개헌이고, 밑줄 친 정부는 이승만 정부다. 이승만 정부는 정전 협정 뒤인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군사 동맹을 세웠다(1954년 발효).

③ X 해설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전남 함평 농민들이 고구마 수매 약속을 어긴 농협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운동이다. 박정희 정부(유신 체제) 때의 일이다.

④ X 해설 금융 실명제는 1993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전격 실시했다.

⑤ X 해설 삼청 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의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사회 정화」를 내세워 설치했다. 이승만 정부와는 거리가 먼 1980년의 일이다.

47 현대 · 유신 체제 정답 ⑤

① X 해설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은 1986년, 노동 현장에 들어간 대학생이 경찰서에서 성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부 때 일로, 이듬해 6월 민주 항쟁의 배경이 되었다.

② X 해설 정부를 비판하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1959년 이승만 정부 때다.

③ X 해설 최저 임금법은 1986년 말에 만들어졌고, 최저 임금 위원회(처음 이름은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는 1987년에 설치되었다.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이다.

④ X 해설 도지사·시장·군수 같은 자치 단체장까지 주민이 뽑는 지방 자치제는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전면 시행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⑤ O 해설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인분을 뒤집어쓴 사건(1978)과 YH 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1979)이 있었던 정부이니 (가)는 박정희 정부(유신 체제)다.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이 긴급 조치 철폐와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48 현대 · 6월 민주 항쟁 정답 ③

① X 해설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배경이 된 것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 항쟁이다. 이 항쟁 직후 10·26 사태가 일어났다.

② X 해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것은 1960년 4·19 혁명이다. 3·15 부정 선거에 맞선 이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다.

③ O 해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호헌 철폐·독재 타도」라는 단서로 밑줄 친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다. 이 항쟁으로 여당 대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했고, 그해 10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④ X 해설 시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시민군을 만든 것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무장했다.

⑤ X 해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 일어난 것은 1964년 6·3 시위(6·3 항쟁)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다.

49 현대 · 노태우 이후의 정부 정답 ⑤

① X 해설 우리나라 첫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칠레 FTA는 2003년에 서명하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발효되었다. 김영삼 정부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다. 중화학 공업을 키우던 시기의 성과다.

③ X 해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담았다.

④ X 해설 소련과 국교를 맺은 것은 1990년 9월, 북방 외교를 펼친 노태우 정부 때다.

⑤ O 해설 「문민정부 출범 직후」, 「하나회 청산」이라는 단서로 기사는 김영삼 정부 때의 것이다(1993년 3월 숙청 시작, 이듬해 마무리). 김영삼 정부는 1996년 6·25 전쟁 중 국군이 거창 주민들을 학살한 거창 사건(1951) 등의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특별 조치법을 만들었다.

50 통합 · 지역사 정답 ④

① X 해설 원종과 애노는 889년(진성 여왕 3년) 사벌주, 지금의 경북 상주에서 봉기했다. 신라 하대 농민 봉기의 시작으로 꼽힌다.

② X 해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외규장각에서 빼앗아 간 책이다. 강화도에 관한 탐구 주제다.

③ X 해설 강주룡은 1931년 평양 을밀대 지붕에 올라 임금 깎기에 반대하는 고공 농성을 벌였다. 평양에 관한 탐구 주제다.

④ O 해설 「너븐숭이 4·3 기념관」과 「알뜨르 비행장」(일제가 세운 군용 비행장)이 있는 곳이니 (가)는 제주도다. 김만덕은 제주의 여성 상인으로, 정조 때 큰 흉년이 들자 1795년 재산을 털어 곡식을 사들여 굶주린 제주 사람들을 살렸다.

⑤ X 해설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영국군이 점령한 곳은 거문도다(1885~1887). 거문도는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이지만 제주도는 아니다.